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③



▶ **4회 예고**
왕성에 도착한 다르마는 자나사나를 따라 이지비카교 사원으로 간다. 그곳에서 왕자들을 교육시키던 빵갈로바뜨사를 기다린다. 빵갈로바뜨사는 15번째 왕비에게 다르마를 데리고 간다. 왕비는 다르마를 보자마자 질투한다.

작별하는 다르마… "운명 받아들이겠소"

두 달 후. 보름날 밤이었다. 보름달이 검푸른 강가강 너머에서 떠올랐다. 브라흐민과 다르마는 빠딸리뿌뜨라로 가기 위해 나루터로 나와 있었다. 자나사나와 약속한 날 밤이었다. 다르마가 탈 가트 말뚝에 매인 나룻배는 흐르는 강물에 당나귀처럼 끄덕끄덕 움직였다. 브라흐민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다르마를 꼬옥 껴안으며 말했다.

"다르마야, 울지 마라. 자나사나 구루께서 너를 친절하게 데려다 줄 거야."

"어머니, 왜 이 밤에 떠나야 하나요?"

"뱃사공이 내일 아침까지 여기로 급히 돌아와야 한단다. 그래서 지금 떠나는 거야."

"슬프고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라. 저 보름달처럼 인드라 신께서 널 지켜주실 거다."

수드라 신분의 뱃사공도 다르마를 위로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빠딸리뿌뜨라는 눈감고도 갈 수 있는 곳입죠.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도 이 배를 타고 가셨읍죠."

"네가 빵갈로바뜨사를 알고 있다는 말이냐?"

브라흐민 아내가 물었다.

"알고 있습죠. 지금도 가끔 심부름을 하고 있습죠."

"그렇다니 안심이 되는구나.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는 우리 집에 초대를 받아 여러 번 오셨어."

실제로 빵갈로바뜨사는 다르마의 아버지 브라흐민과는 늘 데면데면했지만 다르마의 어머니를 만나면 말수가 많아지는 등 활발해졌다. 브라흐민이 다르마가 가지고 갈 짐을 뱃사공에게 건네주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자나사나는 나룻배에서 다르마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브라흐민의 아내는 다르마를 마지막으로 껴안으며 울었다.

나룻배에서 보름달을 쳐다보며 기도하던 자나사나가 뱃사공을 불렀다. 보름달 달빛이 강물에 떨어져 금 조각처럼 반짝였다. 드디어 뱃사공이 말뚝에 매인 밧줄을 풀었다. 그런 뒤 뱃머리로 올라가 손바닥만 한 유등에 불을 켜더니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이윽고 뱃사공이 조그만 유등을 강물에 띄웠다. 그때였다. 나룻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브라흐민이 갑자기 나룻배에 올라탔다. 자나사나가 놀라 물었다.

"브라흐민이여. 어제, 다르마를 내게 부탁하지 않았소?"

"지금 마음이 변했소. 다르마를 혼자 보낼 수 없소. 궁궐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겠소."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르마의 운명은 궁궐로 들어가게 되어 있소."

"나도 빠딸리뿌뜨라까지 따라가겠소."

유등이 강에서 솟아난 연꽃처럼 피어났다가 나룻배에서 멀어졌다. 유등불은 꺼지지 않고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강가강의 신에게 가고 있었다. 브라흐민의 아내는 짐승처럼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그러나 다르마는 곧 가물가물 사라지고 말았다.

노 젓는 소리만 철퍼덕철퍼덕 들릴 뿐 강가강은 적막했다. 자나사나는 앉아 웅크린 채 졸고 있었다. 다르마는 강물에 떨어져 부서지는 보름달 빛을 꼼짝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간혹 강물에 어린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곤 했다. 그러다가도 출렁거리는 물결에 지워지면서 사라졌다. 다르마가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기는 처음이었다. 강물에 어린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잠을 자지 않기는 브라흐민도 마찬가지였다. 브라흐민은 나룻배가 짬빠성을 떠날 때부터 다르마의 앞날을 위해 리그베다와 아타르바베다를 번갈아 외면서 기도했다.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다르마와 브라흐민의 정수리에 쏟아졌다. 자나사나가 토막잠에서 깨어나 소리 나게 하품을 하며 차가워진 밤공기에 진저리를 쳤다. 그러자 머리부터 어깨까지 두른 두꺼운 숄이 벗겨졌다. 브라흐민이 자나사나에게 말했다.

"안개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 같소."

"강물이 차갑게 식어버린 시각이오. 그래서 더 춥지요."

브라흐민이 다르마를 돌아보며 물었다.

"너는 오들오들 떨고 있구나."

밤안개가 강가강을 삼켜버릴 듯 뒤덮고 있었다. 보름달도 안개에 빛을 잃은 채 창백해졌다. 그래도 뱃사공은 능숙하게 물살을 거스르며 노를 저었다. 다르마는 눈만 보이게 숄을 둘러쓰고서 두려움에 떨었다. 자나사나가 말했다.

"도착해 화톳불을 쬐면 나아질 거요. 불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줄 거요."

뱃사공이 말했다.

"잠시 후에는 물살이 거세지니 앉아서 배 옆구리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물살이 회오리치는 위험한 곳입죠."

뱃사공이 말한 위험한 곳이란 히말라야산에서 발원한 간다끼강, 골고라강, 야무나강이 합쳐진 강가강과 데칸고원에서 흘러온 손강이 만나 굽이치는 좁은 수역이었다. 네 강물이 합류해 좁은 수역을 빠져나가므로 물살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거칠게 회오리쳤다.

뱃사공은 노련하게 밤안개를 뚫고 올라갔다. 그래도 잠시 후에는 나룻배가 강물 속에 솟아 있는 바위를 스쳤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나룻배가 심하게 기우뚱했다. 모두가 나룻배 바닥에 바싹 엎드려 숨을 죽였다. 강물이 튀어 올라 나룻배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뱃사공은 물벼락을 맞았지만 동요하지 않고 노를 놓지 않았다. 브라흐민이 불안하게 말했다.

"얼마나 남았는가?"

"이곳만 빠져나가면 안전합죠. 강물이 곧 순해질 겁니다요."

얼굴에 물벼락을 맞은 자나사나가 웃으며 말했다.

"브라흐민이여. 오늘은 강물에 몸을 적실 필요가 없어졌소. 강가의 신이 성수를 뿌려주었으니 말이오. 하하하."



"추워 죽겠어요. 어서 불을 쬐고 싶어요."

자나사나가 말했다.

"다르마여, 우리가 내릴 곳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불빛이 보일 거요."

불빛이란 빠딸리뿌뜨라 성 초입에 있는 나루터의 세관을 말했다. 밤새 기름불을 켜고 있는 나루터에는 통행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다. 지독한 안개가 강가강을 삼켜버린 밤에는 세관의 불빛이 등대 구실을 해주었다. 다르마는 뱃사공이 내뱉은 불빛이란 말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다르마는 작은 새처럼 가엽게 떨었다. 브라흐민은 빠딸리뿌뜨라로 가는 험난한 뱃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과연,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수역을 빠져나가자 깜박거리는 불빛이 보였다. 어느 새 물살은 유순해졌고 강은 호수처럼 넓어졌다. 밤안개가 푸른 빛으로 변해 꼭두새벽임을 알렸다. 빠딸리뿌뜨라성이 가까운 듯 멀리서 닭이 홰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북처럼 희멀건 보름달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다르마의 운명을 자나사나로부터 들었던 브라흐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다르마가 빠딸리뿌뜨라성으로 간다고 해서 바로 왕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후궁이 되었다가 빈두사라왕의 눈에 들어야만 왕비로 점지될 터였다. 자나사나는 다르마가 반드시 왕비가 될 운명이라고 단언했지만 거기까지 오르는 과정은 짬빠성을 떠나 빠딸리뿌뜨라 성으로 오는 뱃길처럼 순탄치 않을 것이었다. 뱃사공은 세관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도 소리를 질러 신고했다.

"짬빠성 사공이요! 짬빠성 사공이요!" 소리를 지르는 까닭은 밤안개 때문이었다. 적이 아니라고 신고하고 나루터에 접근해야 했다. 곧 종소리가 서너 번 들려왔다. 나루터 접근을 허락하는 종소리였다. 뱃사공이 말했다.

"세관에 통행세를 낼 필요는 없습죠. 빵갈라바뜨사 구루께서 세리에게 당부해 두었습죠."

마침내 세 사람은 나루터에서 내렸다. 너른 강변 모래밭도 안개가 자욱했다. 보초서는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화톳불로 피우고 있었다. 세관은 볼품없는 움막이나 다름없었다. 지붕에는 갈대를 얼기설기 얹었고, 출입문은 거적을 두르고 있었다. 세리가 나와서 뱃사공을 보더니 말했다.

"빵갈라바뜨사 구루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인가?"

"예, 이분은 자나사나 구루시고, 이분은 브라흐민, 이분은 브라흐민의 따님…."

"귀하신 분들이시구먼."

세리의 태도가 금세 달라졌다. 빵갈라바뜨사로부터 다르마가 왕비가 될 것이라는 귀띔을 들었는지 친절하게 맞이했다.

"세관 안으로 드시지요. 따뜻한 짜이를 대접하겠습니다."

움막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세관의 책상 위에 놓인 호롱불은 움막 안을 환하게 밝혔다. 긴 대나무의자에 앉은 세 사람은 세리가 내민 잔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세리가 밖에다 뭐라고 소리치자 군사 한 명이 짜이가 든 주전자를 들고 왔다. 주전자는 불에 그슬려 숯덩이처럼 새까맸다. 그래도 주전자 안에서 나온 짜이는 뜨겁고 달콤했다. 세 사람 모두 짜이가 기도를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자 밤공기에 굳었던 몸이 나른하게 풀어졌다.

"날이 밝아질 때까지 화톳불을 쬐시오."

"세리 나리, 이거 집에서 담근 술입죠."

뱃사공이 세리에게 바치는 일종의 선물이었다. 뱃사공은 세관을 들를 때마다 세리에게 선물을 상납함으로써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화톳불을 어디에 필깝쇼?"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하게. 강바람이 불면 세관이 위험하니까."

세 사람은 강변 모래밭 언덕 밑에 자리를 잡았다. 화톳불 땔감은 세리가 챙겨주었다. 뱃사공은 갈대 한 단 위에 잡목들을 얹고는 불을 붙였다. 갈대에 불이 붙자 금세 따다닥 따다닥 소리 내며 불길이 치솟았다. 뱃사공이 말했다.

"저는 이제 짬빠성으로 돌아가야 합죠. 브라흐민께서는 따님과 여기서 헤어져야 합죠."

밤안개가 좀 전과 달리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새벽빛이 간밤의 어둠을 시나브로 밀어내는 중이었다. 강변 너머의 망고나무 숲도 어렴풋이 드러났다. 자나사나가 돌아가는 브라흐민과 뱃사공을 위해 잠시 기도를 해주었다. 화톳불 불빛 속에 드러난 다르마의 표정은 뜻밖에 담담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의 얼굴이었다.

기도를 마친 자나사나가 말했다.

"브라흐민이여, 이제 돌아갈 시간이오. 마지막으로 다르마에게 할 말은 없소?"

"다르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이오. 허지만 작별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오."

"아버지,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운명을 받아들일 거예요."

브라흐민이 말했다.

"너를 한 번 안아보고 싶구나."

다르마가 뚱뚱한 브라흐민에게 안겼다. 브라흐민이 다르마에게 속삭였다.

"네 인생은 짬빠성에서 오는 뱃길처럼 순한 길도 있고, 사나운 길도 있고, 평온한 길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빠딸리뿌뜨라성에 이른 것은 그 모든 길을 다 지났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 만나든 좌절하지 말거라. 좌절하지 않는 것이 신의 축복이더라."

"아버지, 알겠어요. 다르마는 어떤 길이든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브라흐민은 다르마와 포옹한 뒤 그곳을 떠났다. 뱃사공을 따라 나루터로 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나사나는 다르마를 데리고 빠딸리뿌뜨라 동문으로 걸어갔다. 빠딸리뿌뜨라성은 강가강과 손강 사이에 있었다. 날카로운 목책은 이중으로 석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석성 안에는 많은 수행자와 성민들이 거주했고, 온갖 꽃이 피고 지는 정원과 궁궐은 언덕 한 가운데에 우뚝 자리 잡고 있었다.〈계속〉

靈영通통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구,돌할머니〉)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총무원장 **동진** 합장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대인사

